

여야, ‘통일교 특검’ 전격 합의… ‘3대 뇌관’ 남았다

여론 압박 與선화…각론 줄다리기 예고

정청래 “국힘 연루 포함 명백히 밝혀야”

송언석 “野탄압용 변질되면 안돼” 경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이 요구해 온 이른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 수사를 지켜보았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여야는 조만간 특검법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립 특검의 취지에 비추어 통일교 특검도 못 받을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 통일교의 정치 개입, 불법 정치 자금 로비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바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특검이 사실상 ‘제2의 대장동’ 사태처럼 야당 탄압용으로 변질해서는 안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악화된 여론과 야권의 압박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응답은 62%에 달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특검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협상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향후 특검법 협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대상 범위 ▲수사기간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야당이 주도하거나 제3자 추천 방식이 자칫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즉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불법 정치 자금 로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의혹을 넘어 지난 대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 기간 역시 민감한 문제다. 민주당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앞세워 충분한 수사 기간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야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수기자



野 필리버스터…본회의장 떠나는 민주당

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동혁 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

/연합뉴스

이개호 “동부 총괄 부지사 상주…행정체제 구축”

순천서 ‘전남도민과 타운홀 미팅’

“동부권 도청 제2청사 건립 필요”

‘민원 완결형’ 시스템 도입 제안

의대 목포·순천 ‘투 캠퍼스’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순천에서 도민 정책간담회 타운홀 미팅을 열어 ‘전남 동부권 도청 제2청사’ 건립과 ‘행정 총괄 전담 부지사 상주 배치’를 통한 행정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순천 신대지구에 운영 중인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의 경우 특정 부서만 떼어놓은 출장소형 방식으로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목포 기업이 환경 민원을 위해 순천을 오고 순천 주민이 농업 민원을 위해 무안 본청까지 가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사례(경기 북부 행정2부지사)를 대안 모델로 언급한 이 의원은 “도청의 주요 기능들을 패키지로 가져와 지금과 비슷한 인원으로 동부권에 또 하나의 도청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

총괄 업무를 전담하는 부지사를 동부권에 상주 배치해 주민 생활과 관련된 민원의 80% 이상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민원 완결형’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이 의원은 “순천과 목포 양 지역에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모두 두는 ‘투(two) 캠퍼스’ 체제가 지역 갈등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단지 정상화와 광양 철강 산업의 공정 전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 인구의 40%와 경제 생산의 75%를 점유하는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며 “지역 위상에 부합하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차기 시·도지사 임기내 광주·전남 통합해야”

이병훈 “자리 연연않고 무조건 협력”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22일 “물리적 시간과 절차를 감안할 때 차기 시·도지사 임기내에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광주·전남 통합에 무조건 협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따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힘을 모으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 되



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위원장은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특별광역연합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동 협력 과제에 한계 있고 아직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국가 전략에 대응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며 “통합의 조건은 개인의 정치적 입지보다는 지역의 미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김원이, 소상공인협 ‘2025 초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22일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초정(楚亭)대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으로 초정은 박제가 선생의 호다. 소상공인 관련 입

법과 정책 공로가 큰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전통신장에서 상점가까지 확대하는 전통신장법 개정안과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해 안심벨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올해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완화 정책의 혜택을 소상공인이 아닌



병의원이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사용처 확대 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48억원으로 가맹 확대 12개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김원이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들이 주시는 상이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목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늘 귀 기울여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 교육과정 | | | |
|----------|------------------|---------------------|---------------|
| 2급 지도자과정 |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 1:1지도 사전예약 |
| 1급 지도자과정 |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 1:1지도 사전예약 |
| 초급완성반과정 | 12만원 |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 1:1지도/3회 사전예약 |
| 초급원포인트과정 | 6만원 |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 1:1지도/2회 사전예약 |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